

# 조선 중기의 과시 모은 《동시품회보》

하버드대 엔칭도서관의 고서들 — 9

허경진 | 연세대 국문과 교수

《동시품회보》는 1권 1책 49장의 필사본인데, 임 제부터 안광우까지 44명의 과시 67수가 실려 있다. 우리나라의 과시 가운데 상품만 모은 이 책이 발견됨에 따라 과시 연구의 시기를 16세기로 올려 잡을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백호 임 제 · 석주 권 필 · 교산 허균 · 택당 이식 · 삼연 김창흡 등의 대가들이 지은 과시를 연구할 수 있게 됐다.

조선시대에 과시를 뽑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과거 시험을 치러 합격자를 내는 것이었다. 과거는 초시(初試) · 감시(監試) · 전시(殿試) 세 차례로 치렸으며, 여러 과목을 시험했다. 시대에 따라 시험과목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시(詩)와 부(賦)인데, 이 글들은 평소에 짓는 시나 부와는 형식이 달라 과시(科詩) · 과부(科賦)라고 했다.

과시는 조선 초기에 대제학을 지낸 변계량(卞季良)이 과거시험의 채점기준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문체라고 한다. 18구(句) 36척(隻)의 7언고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평삼축(二平三仄) 이축삼평(二仄三平)'의 운을 지켜야 했고, 첫귀 · 포두(舖頭) · 첫목 · 두목 · 회제(回題) 등의 받침도 대구를 잘 이뤄야 했다. 제목 가운데 한글자를 운(韻)으로 삼고, 셋째 구에서 입제(立題)를 잘해야 했다. 짧은 시간에 시 한 편으로 인재를 뽑아야 했으므로, 미리 여러가지 형식을 정해 그 형식을 다 잘 지킨 시를 뽑았던 것이다. 과시를 흔히 과체시(科體詩) · 행시(行詩) · 동시(東詩) · 동인시(東人詩) · 공령시(功令詩)라고도 했는데, 중국에 없는 문체였으므로 동시(東詩)나 동인시(東人詩)라고 했던 것이다. 이번에 하버드대 엔칭도서관에서 새로 발견한 《동시품회보(東詩品彙補)》도 동시(東詩)라는 이름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과시를 모은 책임을 쉽게 알 수 있다.

## 수백년 동안 필사돼 온 상품 과시 모아

이 책은 1권 1책 49장의 필사본인데, 임 제(林悌 1549~1587)부터 안광우(安光宇 1753~?)까지 44명의 과시 67수가 실려 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책의 편자는 이 책을 편집하게 된 동기를 서문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내가 이미 《동시품회(東詩品彙)》도 엮었는데, 실린 것이 미비한 점이 있어서 또 44명의 시 67수를 뽑아 별권을 만들고 《동시품회보(東詩品彙補)》라고 했다. 《동시품회》에 실린 사람과 실리지 않은 사람을 모두 실었다.”

서문이나 발문에도 ‘시(詩)라고만 표현해, 이 책이 과시를 모은 책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품회》라는 제목만 보더라도, 그가 엮은 두 책이 우리나라의 과시 가운데 상품(上品)만 모은 책임을 알 수 있다. 이 책 앞에는 서문과 함께 <목록(目錄)>이 실려 있는데, 골라뽑은 시인의 이름과 함께 실린 작품의 숫자까지 밝혀져 있다.

임제 1, 권필(權鞮) 1, 허균(許筠) 5, 한준겸(韓濬謙) 1, 정문부(鄭文孚) 1, 이식(李植) 1, 황상(黃床) 1, 신유(申濡) 1, 이하(李夏) 1, 남구만(南九萬) 2, 정기중(鄭起宗) 1, 이서우(李瑞雨) 1, 김명주(金命胄) 1, 김창흡(金昌翕) 3, 이사명(李師命) 6, 임방(任瓘) 1, 최창대(崔昌大) 2, 이재(李緯) 2, 김계환(金啓煥) 1, 이병상(李秉常) 1, 심제현(沈齊賢) 1, 심상정(沈尙鼎) 1, 임정(任珽) 3, 이존중(李存中) 1, 임박(任璞) 3, 임섬(任璿) 1, 이세구(李世龜) 1, 오상렴(吳尙濂) 1, 오대관(吳大觀) 1, 강백(姜栢) 1, 한선양(韓善養) 1, 이서표(李瑞彪) 3, 신사권(申史權) 3, 신사원(申史源) 1, 노궁(盧絃) 1, 이중해(李重海) 2, 남기로(南綺老) 1, 신광수(申光洙) 1, 신광하(申光河) 2, 박장섭(朴長燮) 1, 이광려(李匡呂) 2, 이가환(李家煥) 2, 이한조(李漢肇) 1, 안광우 1.

이 책에 실린 시들이 실제로 과거에 응시해서 지은 시들인지는 확실치 않다. 실제 과거 시험장에서 지은 과시에는 시관(試官)과 성적, 그리고 낱짜를 밝힌 다음, 잘 지은 부분에 먹으로 비점(批點)을 찍고 인주로 권주(圈朱)를 찍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제목과 시인 이름만 밝혀져 있고, 잘 지어진 부분에 비점과 권주만 찍혀 있다. 시험 답안지에 가장 중요한 시관 이름과 성적이 빠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젊을 시절에 연습삼아 지어본 과시들을 모은 책일 수도 있다. 어쨌건 이

시들이 잘 지어진 과시로 이름났기 때문에 몇백년 동안 계속 필사돼 전해졌으며,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책의 편자가 다시 골라 뽑아서 한 책으로 엮었음을 알 수 있다.

### 조선 중기의 과시 자료 처음 제공

이 책의 편자는 발문에서 원편(原編)에 94명을 뽑고 보편(補編)에 새로 13명을 넣어, 모두 107명의 과시를 뽑아 실었다고 했다. 이 책에 실린 44명의 시인 가운데 13명은 《동시품회》에도 이미 골라 뽑아 실었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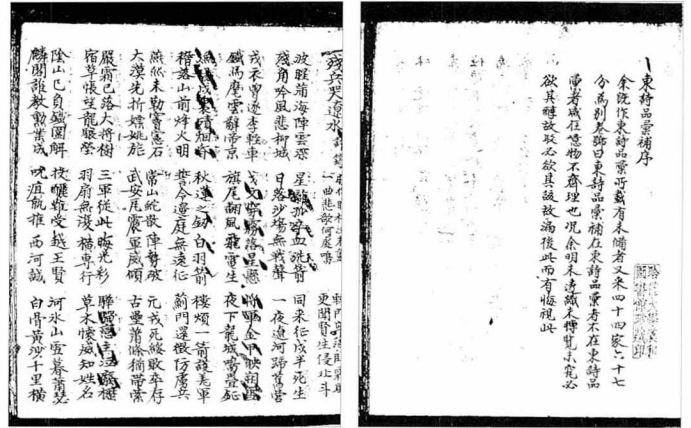
문인이 세상을 떠나면 후손이나 제자들이 모여서 문집을 엮었다. 이때 모든 작품을 문집에 실은 것은 아니다. 널리 수소문해 작품을 모으긴 하지만, 진위(眞僞)와 고하(高下)를 가려 뽑았다. 고인의 작품이 아니라고 인정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또는 습작기의 작품들은 모두 신지 않았다. 습작기의 작품을 꼭 실어야 할 경우에는 “아시작”(兒時作)이나 “구세시작”(九歲時作) 등의 주를 덧붙여, 습작임을 밝혔다. 역적과 관계된 작품도 물론 신지 않았다. 본인이 생전에 편집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초기 작품을 불사르거나 문집에 신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남에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보여줄 만한 작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과시 경우에는 대부분 문집에 신지 않았다. 조선시대 선비라면 일단은 과거에 급제해 벼슬을 얻고 자신의 포부와 경륜을 펼치는 것이 목표였으므로, 대부분 과거시험을 준비했다. 평소에도 과시를 공부하고 연습했으며, 사학(四學)이나 성균관에 입학하면 수시로 과시를 지

“과시를 흔히 과체시(科體詩)·행시(行詩)·동시(東詩)·동인시(東人詩)·공령시(功令詩)라고도 했는데, 중국에 없는 문체였으므로 동시(東詩)나 동인시(東人詩)라고 했던 것이다. 이번에 하바드대 엔칭 도서관에서 새로 발견한 《동시품회보(東詩品彙補)》도 동시(東詩)라는 이름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과시를 모은 책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었다. 여러 차례 시험을 거치기도 했다. 급제할 때까지 수많은 과시를 지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단 급제한 뒤에는 더이상 과시를 짓지 않았다. 까다로운 형식의 과시를 일부러 지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나중에는 자신의 작품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자신의 개성이나 정감을 표현한 시가 아니라 시관들이 요구한 형식 속에 시험공부한 내용을 가 능하면 많이 나타내려고 애쓴 글이기 때문이다. 시 속에 시인은 없어 지고 시인의 독서와 시험형식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금 문집에 과시가 실린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지만 과시는 시중에 많이 돌아다닌다. 후대 과거 응시생들이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서,



조선시대 선비들은 문집에 과시를 신지는 않았다. 시관들이 요구한 형식 속에 시험공부한 내용을 나타내려고 애쓴 글이기 때문이다. 사진은 《동시품회보》에 실린 허균의 과시(왼쪽)와 서문.

선배들의 훌륭한 과시를 베껴 읽었기 때문이다. 개인이 수집해 편집한 과시집도 있고, 사학이나 성균관에서 일정한 기간 지은 작품들을 모은 작품집도 있다. 전시(殿試)의 답안지, 또는 사학(四學)이나 성균관에서 월과(月課)로 지은 과시도 상당히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책으로는 규장각에 소장된 《반상과시집(泮庠科詩集)》이 가장 크다. 반(泮)은 성균관을 두른 반수(泮水)인데 성균관을 가리키고, 상(庠)은 순(舜)임금의 학교인데 동·서·남·중(東西南中)의 사부 학당을 가리켰다. 이 학교에 재학한 학생들이 시험삼아 지었던 과시가 시관의 이름 및 성적과 함께 17책으로 편집된 것이다.

### 과시연구의 상한선 올릴 수 있는 계기 마련돼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과시집들은 대부분 18~19세기에 지어진 작품들이다. 당시 과거에 응시하는 사람이 워낙 많았기에, 이들이 공부 삼아 베낀 책들이 많이 전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문학사에서 과시를 많이 다루지 않은 이유는 서정시에 비해서 창작성이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료가 18~19세기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과시를 비교적 자세하게 다룬 연민(淵民) 선생의 《조선문학사》에서도 제17장에 와서야 과시 작품을 처음 소개하면서 “이와 같은 과체시(科體詩)가 도암(陶菴) 이전에 없었음은 아니지만, 많이 전하지 않는다. 이순인(李純仁)의 <한벽지(寒碧池)>와 조헌(趙憲)의 <읍풍수(泣風樹)> 등이 각기 그 문집 중에 실려 있고, 도암을 전후하여 제가(諸家)의 작도 많았으나, 자료를 얻지 못하는 것이 유감이다”고 했다.

이제 《동시품회보》가 발견됨으로써 과시 연구의 시기를 16세기로 올려 잡을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백호 임 제·석주 권 필·교산 허균·택당 이 식·삼연 김창흠 등 대가들이 지은 과시를 연구할 수 있게 됐다. ■